

## 책가도(冊架圖)에 나타난 도자의 심미의식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Ceramics which appears in Painting of bookshelves

박 경 희

강원대학교 디자인대학 문화상품디자인학과 교수

**Park kyung-h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책가도(冊架圖)의 시대적 배경

## 3. 책가도의 양식에 따른 도자의 종류와 특징

- 3-1. 서가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
- 3-2. 장막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
- 3-3. 나열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

## 4. 도자의 종류에 따른 심미의식

- 4-1. 문방용 도자의 고아미
- 4-2. 병의 다양미와 화려미
- 4-3. 접시와 화병의 포용미
- 4-4. 잔·주전자·합의 실용미와 여유미
- 4-5. 이형도자와 기타 도자의 상징미

## 5.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책가도에는 선비들의 책과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도자기·화병·화분·차잔 등이 책사이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책가도가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된 시기는 18세기 후반 정조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책가도를 크게 세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 번째는 책과 애장품이 서가에 잘 정돈되어 진열되어 있는 서가식 책가도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작품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 8폭 병풍 책가도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장막이 드리워진 장막식 책가도로 장한중의 서가식 책가도에 장막이 있는 8폭 병풍 책가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서가가 빠진 나열식 책가도로서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8폭 병풍 책가도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3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한 책가도에 등장하는 도자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다양한 도자에는 사람들의 소망과 동양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도자가 지니고 있는 심미의식은 5가지로 정리가 가능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문방용품 도자기에는 옛 것을 선호하는 고아미  
(2) 병에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변화를 선호하는 다양미와 화려미  
(3) 접시와 화병에는 어느 것이나 담아주는 포용미  
(4) 잔·주전자·합에는 실용성을 주로 하는 실용미와 여유미  
(5) 이형도자와 기타 도자에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화의 한 장르인 책가도에 등장하는 다양한 도자의 심미의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애호하던 도자취향을 접근해 봄으로서 선조들의 문화코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오늘날의 새로운 도자문화를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책가도, 심미의식, 포용미

### Abstract

In the center book and stationery of the scholars, the ceramic ware-the vase-the pot-the cup etc. appropriately arranged and accorded in between the books in painting of bookshelves. Painting of bookshelves in the Joseon was started to be produced earnestly at the time of Jeongjo in 18th century latter.

This paper tries to divide the various style of the painting of bookshelves in three kind formats. First, it is the bookshelves-style painting of bookshelves which the book and the treasures are put in order well in the bookshelves. The selected painting is 8 width folding screens in Hoam art museum. Second, the curtain-style painting of bookshelves which the curtain comes to hang down, is analyzed. The selected painting is the painting of bookshelves of Jang hanjong. Third, as the array-style painting of bookshelves without the bookshelves, it is selected 8 width folding screens in Tongdo Buddhist temple museum.

Analyzing the type and a feature of ceramics which appear in the painting of bookshelves which classified in the format of 3 kinds is like this and the result synthesized to the cermics which have various the desire and oriental ideology of the people are being put in to know the thing, the aesthetic consciousness which like this ceramics keeps the arrangement possible is with 5

kind the result with afterwords is same.

(1) The classic beauty which prefers the old thing in stationery ceramic (2) The various beauty and the gorgeous beauty which prefers the change of form and color in bottle (3) The magnanimous beauty which is put in the plate and the vase (4) The pragmatic beauty and the composed beauty which is mainly practical in the cup-the pot-the hap (5) The symbolic beauty which contains a strong symbolic characteristic in the different ceramics and the rest of ceramics exists as we know that.

About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ceramics which are various appears in the painting of bookshelves which is one style of folk painting research the ceramics idea which the Joseon Dynasty period literary person love to approach understands the cultural cord of the ancestors, there is a meaning which a further today tries to grope new ceramics culture with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Keyword**

painting of bookshelve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the magnanimous beauty

**1. 서론**

**1.1. 연구목적**

책거리는 민화 중에서도 책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묵·필·연(紙·墨·筆·硯) 등의 문방구와 청완품(淸玩品), 학자의 일상용품인 안경·찰그릇·부채·과일·꽃·시계 등의 진기한 외래물품을 호화롭고 기품 있는 분위기로 묘사한 그림으로서 문방사우도(文房四友圖), 책탁문방도(冊卓文房圖), 문방도(文房圖), 책가도(冊架圖) 등으로도 불리 운다.

이인숙의 논문에 의하면 책가도는 궁중의 화원에서 제작해 국왕을 비롯한 최상위계층에서 사용했던 장식병풍이었고, 책거리는 '서민화가'들이 제작해 서민층에서 수용된 일상의 실용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책가도와 책거리의 구분이 있음을 명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책가도란 명칭으로만 사용하고자 한

다.(이인숙, 2004, p.179)

책가도의 등장은 18세기 후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양반층이 확대되고 청(淸)과의 교류로 인하여 외래 문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된 시기는 정조 때로 보인다. 이 당시 중국으로부터 각종 사치품을 비롯하여 서적과 문방구를 적극 수입하였고, 또 수만 권을 수집한 장서가도 생기게 되어 자연스럽게 선비들의 고아한 취향을 표현한 책가도가 널리 사랑받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책가도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전통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적이면서도 민족적인 문화, 전통미술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에 힘입어 현재에도 활발하게 작업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책가도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양의 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비록 도자가 책가도에 등장하는 그림 속의 도자이지만, 다양한 책가도를 서가식 책가도·장막식 책가도·나열식 책가도의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그 책가도에 등장하는 도자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도자의 심미의식을 연구함으로써 현대의 도자와 소통해 보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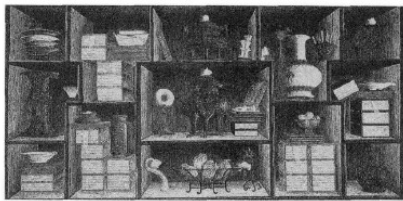
다양한 종류의 책가도는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책과 애장품이 서가에 잘 정돈되어 진열되어 있는 서가식 책가도이다. 두 번째는 무거운 느낌의 장막을 열어젖히고 구경시켜 주는 장막식 책가도이다. 세 번째는 서가가 빠진 모습으로 질서 있게 책을 쌓아 놓고 마치 정물화 같은 형식으로 진열한 나열식 책가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가식 책가도에 관련된 그림으로는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가도 8폭 병풍을, 장막식 책가도에 관련된 그림으로는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해의 대표적인 화가 장한중(張漢宗)의 책가도 8폭 병풍을, 나열식 책가도에 관련된 그림으로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가도 8폭 병풍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3 가지의 8폭 병풍 속에 등장하는 도자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8폭 병풍을 제 1폭은 제 2폭과, 제 3폭은 제 4폭과, 제 5폭은 제 6폭과, 제 7폭은 제 8폭과 묶은 후 한 폭씩 차례로 살펴보고, 서가가 있는 책가도는 아래 부분은 하단, 중간 부분은 중단, 맨 위 부분은 상단으로 구분지어 세세하게 분석하여 도자가 지니고 있는 심미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책가도의 시대적 배경

책가도가 시작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박은화는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에 소개된 서양화법이 강희(康熙, 1662~1722)·옹정(雍正, 1723~1735)·건륭(乾隆, 1736~1795) 연간 궁정에서 크게 유행하여 황제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았고, 이탈리아 화가인 낭세녕(郎世寧, 1688~1766), 체코화가 애계몽(艾啓蒙, 1708~1780), 독일화가 하청태(賀清泰, 1735~1814) 등이 황제의 명을 받아 중국화의 도구와 재료로 서양화의 투시법, 해부법을 사용하여 중국의 공필화(工筆畵)와 서방의 고전사실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 나갔다고 주장했다.(박은화, 1998, pp.269~270, 재인용)

수납과 진열을 겸한 목제 가구는 다보격(多寶格)·백보가(百寶架)로 불리며 궤가류(櫃架類)로 분류되는 청(淸)대에 새로이 출현한 가구이다. 전체 공간을 교묘하고 다양하게 구획하여 진귀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청대 상류사회에서 유행했던 사치스러운 장식용 가구로서, 청 말에 이르러 서궤(書櫃)의 형식과 결합하기도 하고, 화려한 풍혈장식을 부가하거나 유리문을 끼우는 등으로 변화한다. 강희·옹정·건륭 황제의 각종 서적 편찬사업을 주도한 학구적 취향과 방대한 예술품 수집은 궁정의 곳곳에서 책과 수집품을 수납·진열하는 다보격을 설치하게 하였을 것이며, 순치제로부터 시작된 서양문물의 도입이 정교한 사실적 묘사의 궁정 장식미술로 성행하게 되면서 눈속임 효과 장식화들이 그려진 것이 전



(傳) 낭세녕 (郎世寧, 1688~1766)의 <다보격도(多寶格圖, 그림 1)>와

같은 그림이 발생하게 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인숙(2004)에 의하면 조선 책가도의 원류로 보이는 <다보격도>는 책과 완호품(玩好品)이 수납,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규격의 칸으로 이루어진 목가구를 선명한 외곽선으로 명암법·투시도법을 구사한 서양화법으로 그렸으며, 이러한 장식적 그림이 그려진 목적은 서책과 고동(古董)의 우의적 과시효과와 아울러 실물처럼 착각하게 하는 서양화법의 ‘눈속임 효과’에 대한 경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 傳 郎世寧. <多寶格圖>. 종이채색. 124.5×245.4cm. Mr. and Mrs. James Morrissey of Palm Beach, Florida.

방병선(2007)은 그의 논문에서 다보격에는 상대(商代) 옥기(玉器), 한대(漢代) 청동기(靑銅器), 송대(宋代) 자기(瓷器), 청대(淸代) 여의(如意), 소선(小扇), 소칠합(小漆盒), 서양의 시계와 금화 등까지 장식되었고, 다보격 안의 여러 공간에 다양한 청동기, 옥기, 자기 등을 넣어 두고 감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옥기와 자기로 자기의 경우 송대 자기를 모방한 것과 청대 유행하던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후기 책가도의 성립배경은 책과 공부를 좋아한 정조(正祖, 1752~1776~1800)의 학구적 취향과 정조 시대의 외국문물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에 있었다. 책가도 병풍을 정조가 실제로 사용했던 사실은 국역홍제전서(2000)에 제학신 오재순(1971)이 기록한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어좌(御座) 뒤의 서가(書架)를 돌아보면서 입시한 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경은 보았는가?” 하였다. 보았다고 대답하자, 웃으면서 하교하기를, “경이 어찌 진짜 책이라고 여겼겠는가?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옛날에 정자(程子)가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書室)에 들어가서 책을 만지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다. 그려진 책 끝의 표제(標題)는 모두 내가 평소 좋아하는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쓰되 제자백가(諸子百家) 중에서는 『장자』만을 썼다” 하였다. 이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의 글은 취향이 완전히 나와 상반되니, 그들이 즐겨 보는 것은 모두 후세의 병든 글이다. 어떻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그림을 만든 것은 또한 이러한 뜻을 부치고자 해서이다” 하였다(제학신 오재순이 1791년에 기록하다).

규장각에 설치되었던 ‘자비대령화원제(差備待令書員制)’는 정조의 서화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강관식(2001)에 의하면 이 제도는 사화양청(寫畫兩廳)에 8명의 사자관과 10명의 화원을 두어 궁중 안의 국왕 주변에서 근무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정식궁중화원제도로써 국왕과 규장각 각신(閣臣)들이 직접 ‘녹취재(祿取才)’라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면서 화원들을 특별 관리하고 후원하며 재교육하였으며, ‘책거리(冊巨里)’는 ‘책가(冊架)’의 우리말을 한자로 적

2) 顧視御座後書架, 謂入侍大臣曰, 卿能見之乎. 對曰, 見之矣. 笑而教曰, 豈卿真以爲書耶. 非書而書耳. 昔程子以爲雖不得讀書, 入書肆摩挲簡帙, 猶覺欣然, 予有會於斯言. 爲是畫卷端題標, 皆用予平日所喜玩經史子集, 而諸子則惟莊子耳. 仍喟然曰, 今人之於文, 趣尙一與予相反, 其耽觀者, 皆後世病文也. 安得以矯之, 予爲此畫, 蓋亦寓意於其間者矣(提學臣吳載純辛亥錄).

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정조(正祖, 1752~1776~1800)가 12년(1788) 9월 18일에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 그림을 채점한 뒤 특별히 써서 내린 판부(判付)의 글에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책가도의 성립 배경에는 정조의 학문에 대한 개인적인 애호심, 북학이라는 시대사상의 새 물결 속에서 정조 시대 궁중에서 외래화풍이 수용될 수 있었던 점, 이질적인 화풍을 소화할 수 있었던 화원들의 역량과 함께 무엇보다 이러한 회사(繪事)를 지시한 정조의 개방적인 회화관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책가도의 양식에 따른 도자의 종류와 특징

책가도에는 책과 문방사우(紙·筆·墨·硯)뿐 아니라 책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용품, 즉 술병과 술잔, 주전자, 찻잔, 바둑판, 담뱃대, 부채, 시계, 등잔, 촛대, 꽃병, 대접, 단지, 약그릇, 향아리, 괴석, 분재, 화분, 활, 화살 통, 지팡이, 안경, 거문고, 가야금, 단소, 대금, 생황, 해금 등은 물론이고 여자의 치마, 꽃신, 족두리나 식물, 동물, 꽃, 과일, 물고기, 기린, 해태, 사불상과 같은 영수(목각에 채색한 모습) 등도 조화롭게 배치했다. 이들은 사랑방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나 사랑방을 꾸미는 용도를 지닌 것들이었다.

다양한 종류의 책가도는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책과 애장품이 서가에 잘 정돈되어 진열되어 있는 서가식(書架式) 책가도로 본 논문에서는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8폭 병풍 책가도에 그려진 도자만을 정리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무거운 느낌의 장막을 열어젖히고 구경시켜 주는 장막식(帳幕式) 책가도인데 본 논문에서는 서가식 책가도에 장막이 혼합된 장한종의 8폭 병풍책가도에 등장하는 도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는 질서 있게 책을 쌓아 놓고 서가가 빠진 모습의 정물화 같은 나열식 책가도로 본 논문에서는 서안과 함께 있는 통도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8폭 병풍 책가도의 도자를 연구하기로 한다.

#### 3.1. 서가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8폭 병풍 책가도(그림 2)<sup>3)</sup>는 문서나 책 따위를 엮어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서가에 잘 정돈된 책들과 진귀한 보물을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그림으로 보여진다. 이 그림에서는 전체가 8폭 병풍으로 각 폭(135



[그림 3] 책가도 8폭 병풍, 135×300cm, 紙本, 19세기, 호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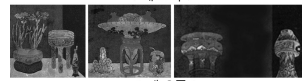
×37.5cm)마다 상·중·하 3단씩 이루어져,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24칸의 단독 공간으로 구성된 책가도이다. 이 책가도에는 많은 양의 도자와 다양한 종류의 도자가 등장하는데 제 1폭에서 제 8폭까지, 그리고 아랫부분을 하단, 중간부분을 중단, 맨 위 부분을 상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1.1. 제 1폭·제 2폭(그림 3)

제 1폭 하단의 오른쪽에는 빨간 원통형의 합이 있다. 그 바로 뒤로 가요식의 균열된 도자가 작은 문방



< 제 1폭 >



< 제 2폭 >

용품을 담고 있다. 송대(宋代)의 가요(哥窯)의 자기는 희대의 보물로 여겨졌다. 그 조형은 간결하고 세련되었으며 고아하면서 제작이 정교하였다. 색조는 비교적 연한 편이고 그 특색은 몸체에 부서진 유리모양의 열문(裂紋)이 있는데 그 조각의 크고 작은 것들이 서로 뒤섞여 큰 것은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작은 것은 갈황색을 띠고 있다.

중단에는 도식화된 용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 빈 공간의 사이사이에 영지모양의 구름이 빨간색·청색 등으로 장식된 분채병이 있고, 그 옆에는 가요식의 단아하게 생긴 목이 긴 병이 있다.

상단에는 가지런히 쌓아 놓은 책 위에 전이 밖으로 벌어진 커다란 빈 접시가 있는데, 접시에는 길상무늬의 하나로서 오복(五福)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이 그려져 있다. 말하자면 제 1폭에 그려진 합과 문방용병, 분채 병과 가요식 병 그리고 접시 등에서 같은 형상의 병보다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단아한 모습의 도자를 선호하고, 그려진 문양은 신성함과 인간의 복을 갈망하는 내용을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2폭의 하단에는 뿌리가 보이는 수선화 2개가 담긴 태극 문양이 있는 수직으로 올라간 접시가 있다. 그 옆에는 도식화된 용 그림과 영지모양의 구름이 화려하게 장식 세발 정(鼎)이 있다. 오른쪽에는 검

3) 志和池昭一郎, 龜倉雄策 編集.(1982). '李朝의 民畫', 下卷, 日本: 講談社, 207-213.

은색으로 꽃문양을 그린 문방용품 병이 있고 그 병 안에는 문방용구가 꽂혀 있다.

중단에는 산 모양의 균열이 자연스럽게 생긴 가요식의 이형도자가 있고, 가운데에는 다리가 길고 좁아 받침대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접시가 있는데 빨강계 잘 익은 석류 3개를 담고 있다. 석류(石榴)의 열매 안에는 많은 종자가 들어 있어 다산을 상징한다. 오른쪽에는 초록바탕에 빨간 꽃과 노란 그림을 그린 긴 분채 잔이 있는데 손가락이 꽂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단에는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여의두문을 장식한 정이 있다. 오른쪽에는 작은 초록의 분채 병이 있는데 몸체에는 황색으로 용을 도식화하여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구름모양의 장식을 두께를 주어 돌렸다. 이상 제4쪽에 그려진 도자는 수선화가 담긴 수직 접시와 석류를 담은 넓은 접시, 다리가 높은 3족정, 색이 화려한 분채 잔과 병 등 제 1쪽에 없었던 기물이 등장하고, 문양 역시 태극문·만자문·구름문·용문·여의두문 등을 사용하여 신성함에 대한 동경과 인간의 소망 그리고 동양 사상이 도자에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 3.1.2. 제 3폭·제 4폭(그림 4)

제 3폭 하단의 왼쪽에는 밑은 넓고 입체적인 문양과 구름문양을 새긴 원통형 도자에 빨간 꽃을 꽂았다. 오른쪽에는 조선식의 소반이 있는데, 소반



< 제 3폭 > < 제 4폭 >

[그림 4] 제 3폭·제 5폭의 왼쪽에는 빨간색의 전이 넓게 외반한 기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굳은 절개와 장생불사를 상징하는 대나무 문양을 그린 목인 긴 표주박 형태의 병이 하나 있다.

중단에는 왼쪽에 굽이 높은 백자 찻잔이 하나 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과일 3개를 담고 있는 빨간 접시가 하나 있다. 빨간 접시에는 무병장수와 기쁨을 기원하는 만수(萬壽)와 희강(喜疆)자가 금으로 그려져 있다. 오른쪽에는 주둥이가 길고 손잡이가 둥글게 말린 차 주전자가 하나 있다.

상단에는 2개의 도자가 있는데 왼쪽에는 빨간색의 선이 직각인 도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가요 형식의 원통형의 기물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물에는 문방용품이 꽂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꽂지 않아 더 단아해 보인다. 말하자면 제3폭에서는 빨간색의 단지·합·접시 등의 선명한 색의 기물이 많이 그

려졌다. 굽이 높은 흰색의 찻잔에 검은색으로 꽃을 그리고 만수희강이라는 글을 장식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소망이 도자에 반영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4폭 하단의 왼쪽에는 자사호로 만든 주전자가 있는데 손잡이가 위로 되어 있다. 가운데의 빨간색의 찻잔의 크기로 보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에는 가요식의 개완(蓋碗)에 아자(亞字)문양과 검은색으로 그린 뚜껑이 살짝 열린 채로 있다. 개완은 뚜껑이 있는 사발[碗]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뚜껑이 있는 찻잔을 말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 지는 개완은 뚜껑이 완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대에 만들어진 개완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고려사』 권제9 문종 32에는<sup>4)</sup> 개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에서 조선에서도 개완을 이용한 차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 권제9. 18장 뒤쪽~20장 앞쪽, 세가 9 문종 32. 재인용.)

태자에게 명하여 순천관에 나가 송나라 사신을 인도하게 하였다. 보낸 물품은 국왕의 옷 2벌은 각기 금과 은으로 나뭇잎을 새긴 칠갑에 넣었고 1벌에는 자색의 꽃무늬를 놓은 비단 겹 공복 하나...개완 10벌...등이었다.

중단에는 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상단에는 목이 길고 몸체가 둥그런 빨간 꽃의 문양을 장식한 병 하나가 단아하게 서 있다. 이상 제 4폭에는 차생활에 필요한 차주전자와 서로 다른 형상의 찻잔 2개가 등장하고, 그리 크지 않은 다화병으로 여겨지는 도자로 보아 차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1.3. 제 5폭·제 6폭(그림 5)

제 5폭 하단의 왼쪽에는 빨간색의 받침대 위에 와인 잔 형상의 범랑채자기(琺瑯彩瓷器) 잔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손가락 같은 것이 있다. 범랑채자기는 강희시기의 새로운 생산품으로 자태화범랑(瓷胎畫琺瑯)이라고도 하며, 이 자기는 유럽의 장식기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중단에는 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단에는 굽이 길고 높은 일자형의 붉은 색의 잔이 있는데 몸에는 태극문양과 구름문이 장식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원통형의 병에 만(萬)희(犧)강(疆)이라는 글씨가 황색·검은색·빨간색으로 썼으며 전부분이 살짝 밖으로 벌어

4) 命太子 詣順天館 導宋使...賜國王衣二對 各金銀葉裝漆匣蓋 一對紫花羅夾公服一領...蓋碗一十副...

져 있다. 다시 말하면 제 5쪽에 등장하는 도자로는 와인 잔 모양의 범랑채자기 잔과 굽이 높으며 몸체에 태극과 구름을 장식한 일자형 잔 그리고 몸체에 글자를 세 가지 색으로 새긴 원통형 병에서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자 하는 일반적인 소망과 동양사상이 도자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6쪽의 하단에는 긴 다리의 3족정이 있는데 몸



[그림 5] 제 5쪽·제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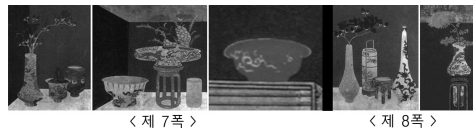
몸체에는 태극문과 구름문 그리고 사방문이 새겨져 있다.

중단에는 왼쪽에 문방용구를 꽂아 놓은 문양을 지닌 백자 병이 있다. 오른쪽으로는 합이 있는데 몸체에 수(壽)자를 금으로 썼다. 바로 뒤에 장식품을 꽂아 놓은 원통형 기물이 있다. 이상 제 6쪽에는 동양사상의 근간이 되는 태극문과 장생을 염원하는 수(壽)자, 신묘한 영지 형상 등이 표현되어 인간 세상에 대한 염원을 도자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3.1.4. 제 7쪽·제 8쪽(그림 6)

제 7쪽의 하단에는 꽃을 꽂은 도식화된 용과 구름이 화려하게 장식된 병이 있다. 오른쪽에는 잔과 뚜껑의 색이 다른 개완잔이 있고, 그 바로 뒤로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한 태극문양과 구름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된 원통형 잔이 있다.

중단의 왼쪽에는 화려한 그림을 장식한 굽이 높은



[그림 6] 제 7쪽·제 8쪽

백자 접시가 있는데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중앙에는 용과 구름을 장식한 화려한 접시가 평범하지 않은 돌과 꽃이 담겨 있고, 오른쪽에는 대나무를 금분으로 살짝 시문한 원통형의 도자가 있고 아무것도 꽂지 않았다.

상단에는 가지런히 쌓아올린 책 위에 금색으로 구름무늬를 장식한 빨간색의 잔이 하나 있는데 뚜껑이 없는 잔이다. 말하자면 제7쪽에 등장한 화려한 병과 개완, 접시 등에 사용된 용과 구름무늬,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 사용에서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와 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8쪽의 하단에는 목이 긴 병에 꽃을 꽂아 놓은 금으로 구름을 장식한 병이 있다. 중간에는 안과 걸

이 다른 색으로 태극문과 구름문을 장식한 다리가 세 개인 정(鼎)이 있고, 오른쪽에는 꽃무늬를 고상하게 장식한 목이 긴 백자 병이 있다.

중단에는 서책만 있고, 상단에는 커다란 황금국화를 꽂은 용과 구름을 빨간색·초록색·노란색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굽이 길고 높은 병이 있다. 이상 제 8쪽에 등장한 기물은 3가지의 다른 양상의 병과 삼족 정으로, 금을 사용하거나 화려한 색채, 그리고 태극문과 신성한 상징인 용과 구름을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놓지 않고, 이상도 현실에서 잊지 않으려는 선조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책가도 8쪽 병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의 형상과 접시, 3족정, 찻잔, 문자 등을 선택 장식한 도자에서 선조들이 실생활 속에서 차생활을 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염원하고, 동양사상의 근본을 한시라도 간과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려는 경각심을 도자의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장막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

궁중화원이 그린 서가식 책가도로는 이형록(李亨祿, 1808~?)의 작품이 유명하며, 그의 작품은 삼성미술관 리움을 비롯하여 몇 군데 소장품이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생존 시기를 생각해 볼 때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한중(1768~1815)의 <책가도 8쪽 병풍>(그림 7)<sup>5)</sup>이 이형록의 <책가도 8쪽 병풍>보다 먼저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장한중의 <책가도 8쪽 병풍>



[그림 7] 장한중의 책가도 8쪽 병풍, 195.0×361.0cm, 19세기 전반, 경기도박물관

장한중의 책가도 8쪽 병풍이 서가식에 장막식을 혼합한 책가도라는 점이다. 장한중은 궁중의 화원으로 8쪽 병풍의 1쪽 하단에 '장한중인(張漢宗印)'이란 글자가 보이는 인장이 옆으로 누워서 그렸고, 이 인장은 궁중 책가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 책가도 8쪽 병풍은 휘장에 가려진 제 1쪽과 제 8쪽 외에는 병풍의 폭이 동일하며, 서가 전체에 휘장을 치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인 소실점으

5) 이인숙 총괄.(2007).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부산: 부산박물관. 118-119.

로 그려져 있고, 책가 안에는 문방구와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채워져 있다. 제 1폭부터 제 8폭 까지 차례로 그림에 나타나는 도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2.1. 제 1폭·제 2폭(그림 8)

제 1폭의 하단에는 서적위에 조선중기의 화원 장한종의 인장(印章)이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중단에는 휘장에 가려져 다 보이지는 않지만 서적위에 절반 정도 녹색 찻잔이 보인다. 두 줄의 돌출된 선을 장식한



[그림 8] 제 1폭·제 2폭

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상단에는 합의 밑의 높이가 높고 뚜껑이 낮은 붉은 색의 합이 보이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중단의 시점과는 다르게 그려졌다. 말하자면 제 1폭에 등장하는 고상한 색의 찻잔과 합에서 차 생활을 하면서 도자를 감상하는 품격 있는 여유를 볼 수 있다.

제 2폭의 하단에는 서책만 그려졌다. 중단에는 중간에 칸을 만들고 오른쪽 칸에는 파란색의 바탕에 금으로 얇은 선으로 문양을 넣은 넓고 긴 목을 가진 병이 있다. 상단의 왼쪽에는 청동기 형상의 초록색으로 굵이 긴 찻잔이 있다. 오른쪽에는 서책 위에 구연부가 넓게 퍼져있는 두 개의 커다란 접시가 겹쳐있다. 아래의 접시는 어두운 색으로 자연스러운 흔적의 문양을 넣은 백자이며, 위에 겹쳐 놓인 접시는 안에는 백색으로 밖에는 청색으로 유약을 칠하였다. 이상 제 2폭에 등장하는 목이 긴 병과 굵이 좁으면서 높은 굽을 가진 잔 그리고 포개놓은 접시 등에서 다양한 도자 종류와 고상한 색상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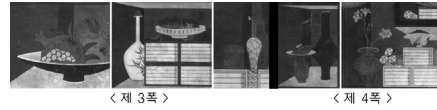
### 3.2.2. 제 3폭·제 4폭(그림 9)

제 3폭의 하단은 가운데 중간에 격을 치고 왼쪽에 다시 2단으로 만든 것으로 왼쪽의 하단에는 문방사우종의 하나인 먹을 사용한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벼루가 있고, 그 위 칸에 걸은 파란색의 굵이 상당히 좁고 내면의 색이 하얀 발이 넓은 도자 안에 석류가 두 개 그려져 있다.

중단에는 대나무가 그려지고 목이 긴 백자 병이 있는데 붉은 색의 잔으로 구연부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병으로 여겨진다. 오른쪽 쪽에는 파란색의 서책

위에 초록색의 수석이 담겨 있는 굵이 좁고 높으며 직각의 짧은 높이를 가진 접시가 있다.

상단에는 두 개의 도자가 있는데 왼쪽에는 제 1폭의 상단에서 살짝 보이는 붉은색의 합과 같은 형상의



[그림 9] 제 3폭·제 4폭

금으로 당초문을 넣은 합이 있고, 오른쪽에는 문방용품으로 보이는 3개의 가느다란 필대가 꽂혀 있는 가요식(哥窯式)의 밑 부분이 긴 매병형상의 도자가 있다. 이상 제 3폭에서는 석류를 담은 접시, 술병, 수석접시, 합, 문방용품이 등장하는데 색상들이 우아하다.

제 4폭의 하단에는 많은 서책들만이 있다. 중단의 가운데에 칸을 만들었으며 왼쪽에 두 개의 도자가 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초록색 찻잔에 붉은색의 뚜껑을 지닌 찻잔으로 일반적인 개완 보다 잔이 높은 것으로 보아 향차(香茶)를 위한 찻잔으로 생각된다.

상단에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넓은 어깨와 좁아지는 형상을 한 병이 있는데 병의 윗부분에는 여의두문이 시문되어 있다. 몸체에는 삼태극이 입체적인 문양으로 그려져 움직이는 듯하고, 굽 부분에는 선으로 아(亞)자처럼 보이는 문양으로 시문하였다. 오른쪽에는 서책 위에 자연스런 문양의 넓은 구연부를 지닌 백자 잔에 붉은 뚜껑이 단정하게 닫혀있는 개완이 있다. 말하자면 제 4폭에는 높이가 깊은 잔과 구연부가 넓은 개완이 나오고, 굽과 목이 높은 병, 태극문의 화병 등에서 우주의 원리인 태극을 생명을 지닌 아름다운 꽃과 함께 도자에 대해 논하는 선조들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연상된다.

### 3.2.3. 제 5폭·제 6폭(그림 10)

제 5폭의 하단에는 서책만 위까지 가득 차 있다. 중단의 오른쪽에는 가요식의 잔에 붉은 색의 뚜껑을 가진 개완이 있다. 상단의 서책위에는 삼태극의 문양을 몸체에 시문하고 굽부분에 여의두문을 장식한 차주전자가 있다. 이상 제 5폭에 등장하는 개완과 주전자는 모두 차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에서 사용하던 차도구 역시 귀한 존재로 서가에 잘 올려놓고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제 6폭의 하단에는 3가지의 도자가 있다. 맨 왼쪽에 있는 청동기를 모방한 람지분채고식병(藍地粉彩觚式瓶)의 안에는 백유를 시유하여 안과 밖을 차별화 하였으며 병 안에는 공작 깃털이 있다. 공작은 권세라는 길상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중국 청나라에서는



관직을 하사할 때 모자에 품격을 나타내는 공작 깃털을 함께 수여하기도 했다. 오른쪽 밑의 칸에는 남색



[그림 10] 제 5폭·제 6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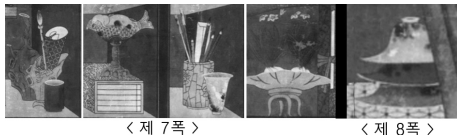
의 찻잔이 구연부를 마주하여 올려져 있다. 오른쪽의 위에는 육각의 합위에 복숭아 모양의 도자가 있다.

중단에는 안에는 백유로 시유하고 밖은 람색의 구연부가 넓은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 안에는 하트 모양의 감자형상이 있다.

상단에는 두 개의 도자가 있는데 왼쪽에는 가요식의 병이 있고, 오른쪽에는 서책위에 구연부가 심하게 외반한 붉은색의 접시 안에 불수감(佛手柑)이 담겨있다. 불수감은 마치 그 모양이 부처의 손과 같고 불(佛)과 복(福)의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다복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제 6폭에는 동기 형상의 병과 이형도자, 접시, 찻잔, 병 등에서 눈에 튀지 않는 아름다운 색상과 형상에 관심을 갖고, 다복이라는 인간의 소망을 도자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4. 제 7폭·제 8폭(그림 11)

제 7폭의 하단에는 안에는 백유로 시유한 붉은색의 원통형의 도자가 있다. 중단은 가운데를 칸으로



[그림 11] 제 7폭·제 8폭

만들었다. 왼쪽 칸에는 서책 위에 나무로 만든 긴 목의 받침대 위에 백자로 만들고 청색으로 잉어의 비늘을 섬세하게 그린 잉어형상의 도자가 있다. 민화의 <어변성룡도>에서는 잉어가 변하여 용이 되는 모습과 물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잉어모습은 출세의 염원을 담고 있다. 오른쪽 칸에는 두 개의 도자가 있는데 하나는 가요식의 원통모양의 도자로 필통으로 쓰이고 있다. 오른쪽에는 자연스런 혼적의 장식을 지닌 문향배가 보인다.

상단에는 왼편에 뿌리가 보이는 수선화(水仙花)가 담겨있는 구연부를 연잎모양으로 만들고 연잎의 선을 장식한 수반이 있다. 이상 제 7폭에는 원통형의 도자와 잉어 이형도자 그리고 접시역할을 하고 있는 도자에서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6) 수선화는 그 이름의 선(仙)이 신선(神仙)의 선과 발음이 같아 신선부귀를 상징한다.

제 8폭의 하단에는 서책만 있고 도자는 없다. 중단에는 서책위에 개완 3개가 같이 엮어져 있다. 맨 밑에는 녹색, 중간에는 붉은색, 맨 위에는 자연스런 문양이 시문된 백자 개완으로, 각 개완의 색상이 아름답게 채색되었으며, 마치 진짜 찻잔인 듯 보이게 반사광까지 표현하였다. 상단에는 휘장이 가려서 자세히 보이지 않으나 도자는 없어 보인다.

종합해서 말하면 8폭 병풍에 등장하는 합, 문방용병, 분채 병과 가요식 병, 접시, 개완, 주전자, 이형도자 등은 실질적인 생활 속에 쓰이는 도자로서, 인간의 복을 갈망하는 내용이나 소망, 그리고 우주의 근본원리를 함축한 태극문을 시문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3. 나열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

나열식 책가도로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8폭 병풍(그림 12)<sup>7)</sup> 책가도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서안(書案) 위에 문기(文氣)를 상징하는 책과



[그림 12] 책가도 8폭 병풍, 108.5×36.5cm, 지본채색, 19세기 후반, 통도사성보박물관

책갑, 붓과 벼루, 경전두루마리, 출세를 상징하는 공작 깃털, 보병(寶瓶)에 꽂은 매화, 연화, 국화 등의 꽃, 자손번창을 상징하는 수박·참외와 같은 씨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그린 책가도이다. 그림의 중앙 아래쪽으로 그림의 중심이 되는 서안(書案)을 화면 가득 그려 놓고 위·앞·뒤로 책갑, 화병, 문방구 등을 다양하게 배치하였다. 1·4·5·7·8폭은 왼쪽 앞에 소실점을 두고 그려졌고, 2·3·6은 오른쪽에 소실점을 둔 구도로 그려졌는데 대체로 서안의 방향과 기물들의 소실점은 일치한다.

또한 이 그림에서의 서안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기물들의 일부분이 중첩되면서도 각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려져 화면 전체에 공간감이 살아 있으며, 적(赤)·청(靑)·황(黃)·백(白)·흑(黑)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준다. 제 1폭에서 제 8폭까지 보기로 한다.

#### 3.3.1. 제 1폭·제 2폭(그림 13)

제 1폭에는 책상 위의 왼쪽에 백자로 된 큰 접시

7) 이인숙 총괄.(2007).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부산: 부산박물관. 126-129.

안에 배가 담겨있고 책 왼쪽으로는 형태가 단순하고 색도 초록색과 검정색으로 표현된 새로운 양식의 도



[그림 13] 제 1폭·제 2폭

자 병이 등장한다. 책상 위의 중앙에는 복숭아 이형도자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초록색·빨간색·파란색의 찻잔이 얹어져 있다. 이상 제 1폭에는 백자 과일을 담고 있는 큰 사발, 색이 진한 병, 색이 강한 3개의 잔과 복숭아 이형도자가 있다.

제 2폭에는 책상 위의 왼쪽에 2개의 선이 그려져 있고 접시의 밑 부분과 굽에 선을 그린 백자 접시 안에는 참외가 있다. 접시 바로 옆에는 대나무가 수직으로 그려진 백자 병이 있는데 병의 입구를 빨간 잔이 덮고 있어 술병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옆으로 괴목으로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 꽃나무를 심은 다양한 색으로 장식한 화려한 도자화병이 있다. 잘 쌓아놓은 책 위에는 도자로 만든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있다. 『본초강목』에 “토끼는 명월(明月)의 정(精)”이라 하였고, 『예기』 「곡례(曲禮)」에는 “달의 정은 명시(明視)이고 그 상(像)은 토끼”라고 되어 있다. 도교에서는 이 흰 토끼를 옥토끼라 부르는데 신선이 만드는 선단(仙丹)에 필요한 신약(神藥)을 뺏고 있다고 한다. 이상 제 2폭에는 큰 접시, 대나무가 그려진 병, 빨간 잔, 화려한 색의 화병, 토끼 형상의 이형도자가 그려져 있다.

### 3.3.2. 제 3폭·제 4폭(그림 14)

제 3폭의 왼쪽에는 높은 기대위에 대나무가 그려진 백자화병이 있고, 그 안에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



< 제 3폭 > < 제 4폭 >

하는 커다란 모란이 활짝 피었다. 바로 앞에는 영지버섯을 담고 있는 백자로 된 사슴모양의 이형도자가 있다. 오른쪽에는 괴목 뒤로 거북의 등에 그려지는 귀갑문의 백자 화병이 있는데 청색으로 바탕을 하였다. 책상위에는 책이 있고 그 책 위에 백자 접시가 있고 그 안에는 빨간 과일이 4개 담겨있다. 오른쪽에 쌓아놓은 책 위에는 파란색의 커다란 접시가 있으며 그 안에는 2개의 노란색의 과일이 담겨있다. 이상 제 3폭에는 문양이 그려진 백자 화병 2개의 과일을 담고 있는 백자 접시, 파란 색

[그림 14] 제 3폭·제 4폭

의 접시 그리고 사슴모양의 백자 이형도자가 그려져 있다.

제 4폭에는 책상위의 왼쪽에 빨간색의 접시가 있고 그 안에는 2개의 오이가 담겨 있다. 뒤의 가지런히 쌓아 놓은 책 위에는 가지 2개를 담고 흰색으로 연판문이 새겨진 푸른 접시가 있다. 책상의 오른쪽에는 커다란 연꽃을 꽃은 붉은 색의 천을 감은 장식을 한 노란색의 화병이 있다. 바로 옆에는 3개의 빨간 발을 갖고 초록에서 붉은색을 하고 있는 둥근 몸통과 뚜껑을 갖고 있는 도자가 있다. 그 뒤의 책 위에는 연잎에 가려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담은 붉은색의 도자가 있다. 이상 제 4폭에는 붉은 접시, 푸른 접시, 커다란 화병, 뚜껑이 있는 도자, 무언가를 담고 있는 도자가 그려져 있다.

### 3.3.3. 제 5폭·제 6폭(그림 15)

제 5폭에는 괴목으로 만든 책상 위의 왼쪽에 두 개의 커다란 과일을 담은 빨간색의 접시가 있다. 오



< 제 5폭 > < 제 6폭 >

른쪽의 바닥에는 대나무가 멋있게 그려진 백자 병이 하나있고, 그 뒤에는 길고 높은 기대위에 청화로 둥근 점을 모아 찍은 청화 백자화분이 있다. 화

분에는 영지와 파초가 심어져 있다. 파초는 다년생 식물로 잎이 넓고 선인(仙人)의 풍취가 있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식물이다. 겨울에는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듬해 봄이 되면 새순이 다시 나오고 불에 탄 뒤라도 속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나온다하여 장구(長久)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지(靈芝)는 버섯의 일종으로 일 년에 세 번 꽃이 피기 때문에 삼수(三秀)라 부르기도 하고, 서초(瑞草) 또는 선초(仙草)라 부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기사회생하고 불로장생한다고 믿었으며, 그 모양이 여의(如意)를 닮은 관계로 길상을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이상 제 5폭에는 접시, 백자 병, 청화백자 화분에는 다산과 불로장생 그리고 소원성취 등의 염원을 상징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

제 6폭의 왼쪽 뒤에 꽃나무를 꽃은 다양한 색으로 장식을 하고 검은색의 커다란 몸을 가진 화병이 있다. 바닥의 중앙에는 방금 같은 벼루 옆에 사각의 백자 연적이 놓여 있다. 책상의 오른쪽 뒤쪽에는 길고 높은 기대위에 안에는 빨간색이고 밖에는 그림을 그

린 크고 작은 청화백자 2 개가 겹쳐 있는데 형태는 잔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잔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상 제 6폭에서는 화려한 화병과 잔 2, 네모 연적이 등장한다.

### 3.3.4. 제 7폭·제 8폭(그림 16)

제 7폭에는 왼쪽 바닥에 윗부분을 잘라 속의 씨가 보이는 커다란 수박이 담긴 빨간 색의 접시가 있다.



< 제 7폭 > < 제 8폭 >

접시의 오른쪽 뒤쪽에는 귀갑문을 장식하고 윗부분은 청색 그리고 아랫부분은 붉은색의 화병이 있는데 모습은 선명하지 않지만 영지의 모습을 한 빨간색의

[그림 16] 제 7폭·제 8폭

가지가 꽃혀 있다. 가지

런히 쌓아놓은 책 위에는 커다란 석류 2개가 담겨 있는 선을 3개 그은 백자 접시가 있다. 이상 제 7폭에는 커다란 빨간 접시, 백자 접시 그리고 귀갑문을 한 커다란 화병이 그려져 있는데 잘라서 속이 보이는 수박의 많은 씨는 다산을 상징하고 있다.

제 8폭에는 책상위의 왼쪽에는 붉은 접시 안에 다리가 세 개이며 뚜껑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단지 하나가 있다. 그 뒤로는 가지런히 책이 쌓여 있고 그 위에는 검은 형상의 과일을 가득 담고 있는 백자 접시가 있다. 백자 접시는 붉은 색을 지니고 있다. 책상위의 오른쪽에는 매화가 그려진 화병에 공작 깃털이 꽃혀 있다. 오른쪽 바닥에 있는 천을 두른 형상의 안에는 빨강과 같은 검은 색의 화병이 있으며, 화병에는 붉은 색과 노란 색의 국화가 꽃혀 있다. 8폭에는 붉은 접시 하나 뚜껑이 있는 단지, 백자 접시, 백자 화병 그리고 검은 색의 커다란 화병이 그려져 있다. 이상 8폭 병풍에 등장하는 도자는 씨가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담고 있는 커다란 접시 종류가 많고, 특히 풍성한 꽃을 꽃고 있는 커다란 화병이 많이 그려져 있다.

## 4. 도자의 종류에 따른 심미의식

도자의 심미의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 미학사상에 관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동양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남만성<sup>8)</sup>이 역해한 『주역(周易)』 「계사전하(繫

辭傳下)』에는 형상과 문양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남만성, 1968, p.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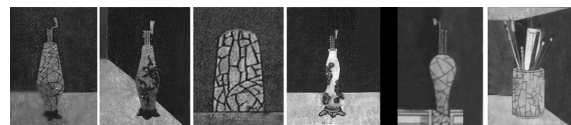
옛날 포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 천체의 현상을 관찰하고 굽히어 땅의 법칙을 살피며, 새와 짐승의 문채와 땅의 마땅한 바를 살피,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천지만물에서 가져다가 처음으로 팔괘를 만드니 신명한 덕에 통달하고 만물의 정상을 유추하여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양의 예술품들은 서양과 달리 문양 하나에도 형상 하나에도 그 어느 것이나 하늘의 현상과 땅의 법칙, 짐승 또는 가까이는 내 몸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도자 역시 동양사상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책가도에 그려진 도자의 종류는 문방용품을 꽂아 두는 작은 도자,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면서 문양이나 색상이 화려한 병,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접시, 다양한 종류의 꽃의 꽃은 화병, 여러 종류와 다양한 색상의 찻잔,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주전자, 뚜껑을 갖추고 있는 합, 사용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이형도자 또는 어떤 일정한 형식에 넣을 수 없는 기타 도자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도자를 미의 범주에 포함시켜 도자가 지니고 있는 심미의식을 알아보기로 하자.<sup>9)</sup>

### 4.1. 문방용 도자의 고아미(그림 17)

호암미술관 소장 책가도에는 4개의 문방용 병이 그려졌는데 3개는 형태와 꽂아놓은 형상이 비슷하나 문양이 들어간 것 2개와 균열유를 바른 것 하나이다.



< 호암미술관 >

< 장한중 >

[그림 17] 문방용 도자

그 중 하나와 원통형은 균열유를 사용하였다. 장한중의 책가도에서는 2개의 문방용품을 꽂아 사용하고 있는 기물이 두 개로 모두 균열유를 사용하였다. 형태는 하나는 매병 형이고 다른 하나는 원통형이다.

이상에서 보면 문방용 기물의 형태는 매병의 단순

8) 古者包羲氏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

9) 편의상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 8폭 병풍은 < 호암미술관 >, 장한중의 책가도 8폭 병풍은 < 장한중 >, 통도사 성보 박물관 소장의 책가도 8폭 병풍은 < 통도사 >라 칭하였다.

화한 형상이거나 원통형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모습으로 매우 단아하다. 문양 또한 선이 자연스럽게 생긴 균열유를 사용하였거나 간단하면서도 고상한 문양을 사용하여 고아미를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 4.2. 병의 다양미와 화려미(그림 18)



[그림 18] 병

병은 어느 책가도에서나 등장하며 형태나 문양도 다양하다. 병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형태임에도 존재방식이 달라진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12개의 병이 그려졌는데 형태도 다양하고 색상도 매우 화려하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화병이 아닌 일반적인 병에 꽃을 꽂아 화병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해진 병의 특징한 개념 없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장한종의 책가도에서는 4개의 병이 나타난다. 목이 긴 검은색의 장경병과 목이 길면서 굽도 긴 검은색의 장경병, 목이 가늘면서 긴 백자에 대나무를 그리고 입구위에 빨간 잔을 얹은 것으로 보아 술을 위한 병으로 생각되는 병이다. 그리고 균열유로 구운 입구가 살짝 밖으로 벌어진 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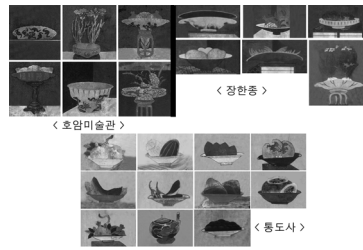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책가도에서는 3개의 병이 보인다. 하나는 초록색과 검은색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한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2개의 병은 모두 목이 긴 백자병으로 대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하나의 병에는 빨간 잔을 얹어 놓고 있어 술병을 추측하게 한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계절을 통하여 색이 변치 않기 때문에 군자의 풍격(風格)과 절개를 상징한다.

이상에서 보면 병은 단순한 형태에서 그리고 화려한 형태와 색상까지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미와 화려미를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 4.3. 접시와 화병의 포용미

접시(그림 19)는 모든 책가도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로서 단순한 형태에서 화려한 형태까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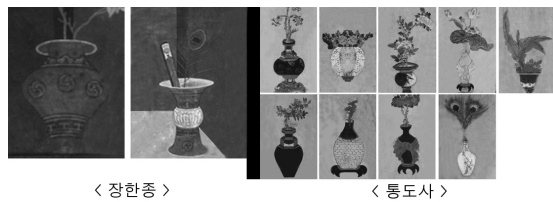
를 담고 있는 모습이 가장 많아 화려할 때조차 소리 내지 않는다.



[그림 19] 접시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 나오는 접시들은 형태가 굽이 높은 것에서 외반형 등 다양하고 화려하며 담고 있는 것은 석류와 꽃 등이다. 석류는 붉은 주머니 속에 빛나는 씨앗들이 빈틈없이 들어 있어 다남자를 상징한다. 장한종의 책가도에는 7개의 접시가 나오며 접시의 형태도 우아하며 다양하고 석류, 수선화, 불수감 등을 담고 있다. 불수감은 감귤류에 속하는 과일로 겨울에 열매를 맺으며, 색이 선황색이고 그 모양이 부처 손가락을 닮았다 하여 불수감이라 불렀다. 불수감의 불이 복과 발음이 유사한 점을 들어 행복의 상징물로 애호하였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11개의 백자, 빨간색, 청색, 청화백자 등의 접시가 나오는데 형태는 비슷하고 모두 갖가지 씨가 많은 참외 등의 과일·야채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외는 열매가 많이 달리고 씨앗이 많기 때문에 자손 번성을 상징하며 덩굴이 끊임없이 뻗어나기 때문에 자손이 끊이지 않는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상의 접시는 그 종류와 형태 그리고 색상도 다양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많은 상징물들을 담아 접시의 본질을 수행하는 포용미를 볼 수 있다.

화병(그림 20)은 장한종의 책가도에는 2개가 나오는데 이형록의 8폭 병풍 책가도의 제 3폭 상단과 제



[그림 20] 화병

7폭 하단과 매우 흡사하다. 커다랗고 화려한 화병들이 통도사의 책가도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커다란 꽃이나 큰 무엇인가를 꽃기에 작은 공간의 책상에는 부적합하다. 검은 색의 화병과 귀갑문이 시문된 백자병, 천을 두르고 있는 검은색 병, 핑크빛 천을 두르고 있는 황색 병 등 화려하면서도 크다. 꽃은 소재는 대부분 꽃이며 경우에 따라 공작 깃털, 영지 등을 꽂아 놓기도 한다. 『본초강목』에 작(雀)은 작(爵)과 같은 글자라 하였다. 작(爵)은 고대 동계주기(銅製酒

器)의 하나로 공작을 구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공작은 우는 소리가 절절족족(節節足足)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중용의 덕을 터득한 새로 여겨졌다.

이상의 화병을 보면 커다란 꽃과 대단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포용미를 볼 수 있다.

#### 4.4. 잔·주전자·합의 실용미와 여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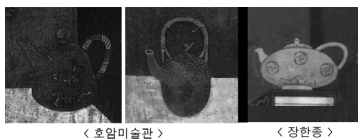
잔(그림 21)에는 술잔도 있지만 그림에 등장하는 개완을 보아 이 시대에는 차를 많이 음용하고 찻잔을 매우 귀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잔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형태와 색상이 더 다양하고 화려한 잔들이 많이 나온다. 장한중의 책가도에는 굵이 길고 가는 형태의 잔과 원통형 잔, 긴 형태의 개완과 뚜껑이 있는 개완 등 다양한 잔이다. 색상도 초록색, 빨간색, 황색, 균열유 등 다양하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3개의 잔을 얹어 놓은 것과 하나는 작고 또 하나는 커서 큰 잔이 작은 잔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책가도에 그려진 많은 잔들은 백자 보다는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형태의 잔을 선호하였으며, 차를 마시며 다양한 감상을 즐긴 여유미를 알 수 있다.

주전자(그림 22)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 손잡이가 뒤로 달린 것과 위로 있는 것이 각각 있는데 색상이 어두워 화려한 잔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장원종의 책가도에는 몸체에는 삼태극문을 그리고 굽 부분에는 여의문이 청화로 그린 차주전자 있는데, 여의는 머리 부분의 모양이 영지와 상서로운 구름 모양을 닮아서 축하하고 기릴 때 쓰는 용품의 문양으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상징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주전자에서는 우주의 기운을 담아 차에 담아내어주는 실용적이면서도 찻잔과 마찬가지로 여유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주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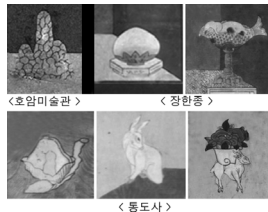
[그림 23] 합

합(그림 23)은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2개

의 합이 그려졌는데 모두 차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실용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한중의 책가도에는 두 개의 붉은 색의 합이 그려지는데 많은 찻잔들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차를 담는 차통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활에서의 존재를 실용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4.5. 이형도자와 기타 도자의 상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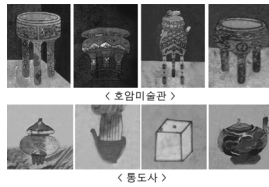
이형도자(그림 24)는 실질적인 용도 보다는 상징을 나타내고자 만든 것으로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산이 그려져 있다. 장한중의 책가도에는 천도복숭아와 잉어가 그려져 있다. 잉어가 변하여



[그림 24] 이형도자

용이 되는 모습을 그린 <어변성룡도>와 물 위로 힘차게 뛰어 오르는 잉어 모습을 그린 문양은 출세의 염원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면학에 힘쓰는 선비들을 전설의 잉어에 비유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잉어가 변하여 용이 되는 것에 비유하였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복숭아, 토끼, 사슴 등이 그려져 있다. 이상 이형도자에서는 사람들의 소망을 도자에 상징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여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도자(그림 25)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책가도에 태극문양을 가지고 있는 삼족정이 4개가 나오며 형태와 색상 그리고 장식기법이 다양하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책가도에는 3개의 다리를 가지고



[그림 25] 기타 도자

있는 항아리가 뚜껑이 씌워져 있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빨간 기물에 사각 연적, 그리고 3족을 가지고 있는 뚜껑이 있는 단지가 있다. 문양에 등장하는 청동기는 주로 고대 종교 의례나 국가의 큰 잔치 때 사용되었던 예식용 그릇들로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상 서가식 책가도·장막식 책가도·나열식 책가도에 나오는 도자를 종류별로 정리한 다음, 각 도자 종류에서 보여 지는 심미의식을 분류하여 보니 문방용 도자에서는 고아미를, 다양한 종류의 병에서는 다양미와 화려미를, 접시와 화병에서는 포용미를, 잔·주전자·합에서는 쓰임에 있어서의 실용미와 여유미를, 이형도자와 기타 도자에서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의 상

정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5. 결론

책가도에는 선비들의 애장물인 책과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사랑방의 기물인 도자기·화병·화분·부채 등과, 선비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술병과 술잔·담뱃대·악기·도검·활·투호·바둑판·시계·대모 안경 등을 책사 이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했다.

책가도가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후반 정조 때이다. 정조는 책가도에 대하여 직접 거론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늘 책 속에서 살면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가 "우문일념(右文一念)"이라고 표현하였듯이 문화 정책에 힘쓰고, 학문을 진흥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며, 학문의 생활화를 주장하였다. 정조가 특별히 책가도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인 것은 정조의 학문 진흥 정책과 연관이 깊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책가도를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 번째는 책과 애장품이 서가에 잘 정돈되어 진열되어 있는 서가식 책가도이다. 그 예로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가도의 도자만을 정리한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의 형상과 접시, 3족 정, 찻잔, 문자 등을 선택 장식한 도자에서 선조들이 차 생활을 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염원하고, 동양사상의 근본이 도자의 문양으로 표현되어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서가식 책가도에 장막이 혼합된 장한종의 책가도에 등장하는 도자는 합과 문방용 병, 분채병과 가요식 병 그리고 접시, 개완, 주전자, 복숭아·잉어의 이형도자 등으로서 인간의 복을 갈망하는 내용이나 소망, 그리고 우주의 근본원리를 함축한 태극문을 시문하여 상징성을 내포한 도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질서 있게 책을 쌓아 놓고 서가가 빠진 모습이거나 마치 정물화 같은 형식으로 진열한 나열식 책가도로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서안과 함께 있는 나열식 책가도를 분석한 결과 도자의 종류로는 씨가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담고 있는 접시류가 많았고, 특히 커다란 꽃을 꽃고 있는 화병이 다양한 상징물을 담고 있었다.

이민수(1993) 역해의 『예기(禮記)』 제 19편 「악기(樂記)」에는 “대체로 소리의 일어남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물건이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물건에 느껴서 움

직이기 때문에 소리에 나타나고 소리가 서로 응하기 때문에 변(變)을 낳는다”고 하였듯이, 도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상과 문양 또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심미의식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이상의 책가도에 등장하는 다양한 도자의 종류에서 보이는 심미의식을 분석하고 종합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방용품 도자에서는 옛 것을 무시하지 않고 선호하는 고아미를 느낄 수 있었다. (2) 병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색상을 애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양미와 화려미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접시와 화병에서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필요에 따라 무엇이나 담아주는 포용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잔·주전자·합에서는 실용성을 위주로 하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실용미와 여유미를 느낄 수 있었다. (5) 이형도자와 기타 도자에서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미로 정리할 수 있다.

민화의 한 장르인 책가도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양의 도자가 등장하고, 비록 그림 속의 도자이지만 책가도를 통해 조선시대 도자의 심미의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애호하던 도자취향을 접근해 봄으로서 선조들의 문화코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오늘날의 새로운 도자문화를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관식.(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연구' (상). 서울: 돌베개.
- 남만성 역.(1968). '주역'. 서울: 현암사.
- 박은화.(1998). '중국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 방병선.(2007). 이형록의 책가문방도 팔곡병에 나타난 중국도자. '한국미술사연구소'. 214.
- 이민수 역.(1993). '예기'. 서울: 해원출판사.
- 이인숙.(2004). 冊架書·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회'. 179.
- 이인숙 총괄.(2007).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부산: 부산박물관.
- 정조.(2000). 국역홍제전서(16). '민족문화추진회', 108.
- 志和池昭一郎, 龜倉雄策 編集.(1982). '李朝의 民書' 下卷. 日本: 講談社.